

제16호('23.12.1~12.31)

※매월 1일 발송

국가안보실 월간 뉴스레터

제16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Contents



01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민 방문 및 프랑스 방문
주요 성과

03



02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에세이

09



03

이슈
톡톡

13



04

글로벌 리서치
포커스

19

01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민 방문 및 프랑스 방문 주요 성과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민 방문 및 프랑스 방문 주요 성과



I. 주요 일정



11.20.(월)

- 동포 간담회

11.21.(화)

- 공식 환영식
- 국왕 주최 환영 오찬
-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 무명용사의 묘 헌화
- 의회 연설
- 자민당 당수 접견
- 국민 만찬

11.22.(수)

- 한·영 비즈니스 포럼
-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
- 문화 예술인 격려 행사
- 한·영 정상회담
- 노동당 당수 접견
- 런던금융 특구 시장 주최 만찬

11.23.(목)

- 국왕과의 작별 인사
- BIE 대표 교섭 만찬

11.24.(금)

-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
- BIE 대표 교섭 오찬
- 국경일 리셉션



01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민 방문 및 프랑스 방문 주요 성과

II. 영국 국민 방문 주요 성과

- 수교 140주년, 한국전 정전 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하여,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 최초 국민으로 영국을 방문, 「다우닝 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발표하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박근혜 前대통령 영국 국민 방문 시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 수립(2013년)

「다우닝 가(街) 합의」 개요

- (명칭) 정상회담이 개최된 英 총리관저 별칭(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
- (성격) 정치적 합의 문서(political document)
- (구성)
 - 본문 (13개 단락): △ 양국 관계 발전의 기본원칙 및 방향 제시 △ 북한, 우크라이나, 남중국해·대만해협,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등 주요 국제·지역 정세에 대한 입장 천명 △ 3대 협력 분야(안보, 경제, 지속가능한 미래)별 협력 원칙 제시
 - 이행 계획 (총 45개 과제): 3대 협력 분야의 개별 과제별로 성과 및 구체 이행 계획 열거 / 안보(8개 과제), 경제(26개 과제), 지속가능한 미래(11개 과제)

- 국방안보, 경제, 과학기술, 지속가능개발,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총49개의 합의 문서를 채택,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협력 토대 마련



01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및 프랑스 방문 주요 성과

국방안보

○ 해양, 지상, 사이버 공간에서 국방·안보 전략적 협력

- ✓ 미국, 호주 등 소수의 국가들과만 시행중인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
- ✓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한영 공동 순찰
- ✓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 ✓ 방산 분야 제3국 공동 수출을 위한 「방산공동수출 MOU」 체결

경제

○ 가치 공유국 영국과의 경제협력을 한단계 도약

- ✓ (교역투자)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우리기업 진출기반 확대, 원산지 규범 개선,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통상협력 확대
 - ✓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로 통관절차 간소화, 수출기업 통관 애로의 신속한 해소 등을 통해 교역 촉진
 - ✓ 2024년 말까지 「경제금융 대화체」 및 정부 간 투자협력 채널 구축



01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민 방문 및 프랑스 방문 주요 성과

✓ (공급망) 반도체, 5G, AI 등 첨단분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등 경제안보 협력 확대**

✓ 「반도체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

✓ 2023년 말까지 「공급망 대화체」 설치, 핵심 공급망 회복력 추진

과학기술

○ 기초과학, 첨단과학, 무탄소에너지 연대 등 미래지향적 협력

✓ (기초과학)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런던왕립학회, Royal Society*) 개최, 기초 원천 연구 중요성 공유, 기술연대 강화

* 뉴턴, 다윈, 아인슈타인 등 과학자들이 활동한 3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세계 최고 권위의 자연과학 학술단체(1660년 설립, 노벨상 수상자 80여명 배출)

✓ (첨단과학) 「디지털 파트너십」 및 「디지털정부 협력 MOU」를 체결, 최신 디지털 기술 경험 공유, AI 인재양성 협력 강화.

✓ 바이오 분야 MOU 3건(△합성생물학 △뇌질환 △바이오의약)을 통해 바이오 혁신 선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대 강화

✓ 「우주협력 MOU」를 통해 우주탐사·우주산업·우주기반·위성 등 분야에서 **미래 우주 경제 파트너로서 협력 강화**



01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및 프랑스 방문 주요 성과

✓ (무탄소에너지연대) 원전, 청정에너지, 해상풍력 등 협력 확대

- ✓ 원전 전주기에 걸친 원전협력 MOU를 총 9건 체결, 원전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원전건설, 설계, 핵연료, 운영·정비, 방폐물·해체, 산업·학술교류 등)
- ✓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통해 원전, 해상풍력, 수소, 핵심광물, R&D 등 청정에너지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
- ✓ 「해상풍력 협력 MOU」를 체결, 관련 정책, 인력교류, 기업협력 모색
- ✓ 핵심광물 공동 실무그룹 설립을 통해 연구협력, 산학 협력, 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

지속가능개발/인적교류 ○ 장기적 발전 토대를 위한 협력 강화

✓ (지속가능개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위한 양국 개발 기관 간 협력 확대

- ✓ 외교부(무상원조), 기재부(유상원조)가 동시 참여하여 최초로 유·무상 포괄적 파트너십을 마련,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 제고

✓ (인적 교류) 2024년부터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상향 조정(기존 30세→35세), 대상 인원 또한 확대(1천명→5천명)하여 미래세대 교류 증진



01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및 프랑스 방문 주요 성과

Ⅲ. 프랑스 방문 주요 성과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차례 정상회담 성사, 고위급 유대관계 강화

- ✓ 22.6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23.6월 프랑스 방문(BIE 총회 참석) 계기 오찬 겸 정상회담에 이어, 금번 조찬 겸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유대관계 심화

○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G7, EU 회원국 프랑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 ✓ 지역정세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프랑스와 UN 안보리, NATO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틀 내 파트너십 도모
-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관련 국제사회의 단합된 지지 확보

○ 미래산업 및 무탄소 에너지 분야 협력 심화

- ✓ 원전, 스타트업, 양자, 반도체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강화 모색
- ✓ 프랑스의 우리측 주도 무탄소 에너지연합(CFE) 지지 확인



02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에세이9.19 남북군사합의 한계와
북한의 목적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에세이

9.19 남북군사합의 한계와
북한의 목적

이호령(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문제제기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후, 5개월도 채 안 돼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됐다.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통해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로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이었다.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국방장관과 북한의 국방상이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사인하고 문서를 교환하자, 실질적인 조치들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1조 2항의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연습 중지, 1조

3항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 1조 4항의 우발적 무력충돌 상황 방지를 위한 절차 증대 등 1조의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를 위한 실질적인 군사조치들은 11월 1일부터 바로 실시되는가 하면, 2조 1항의 GP 시범 철수와 상호검증은 11월과 12월에 이뤄졌고, 2조 2항의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는 10월 25일 13시부터 이뤄졌다.

문제는 6조 22항에 이르는 9.19 군사합의의 다른 조항들은 실질적 이행을 위한 논의조차 진행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년 1월로 넘어가면서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나 만남이 중단되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결렬 이후 북한은 ‘새로운 셈법’을 가져 오기 전까지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남북관계에도 적용했다. 북한은 9.19 합의 직후에도 백령도·연평도 등 우리 서북 도서를



02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에세이9.19 남북군사합의 한계와
북한의 목적

겨냥해 북한 섬과 인근 내륙 해안에 배치된 포문을 지난 5년간 총 약 3400회 이상을 개방하는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1월 23일 서해 창린도 일대에서 해상완충구역안으로 해안포 사격을 직접 지시하며 고의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기까지 했다. 2020년 5월 3일에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우리측 GP에 총격을 가하는가 하면, 2022년 10월 14일부터 12월 26일까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병사격을 13여차례 동시 다발적으로 쏟아부었다. 11월 2일에는 북한의 미사일이 울릉도 인근 해상에 떨어지기까지 했다. 12월 26일에는 서울 및 경기도 북부 일대로 소형무인기를 침투시켰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의 1조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는 것을 육, 해, 공 모든 공간에서 정면으로 위배했다.

뿐만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는 속도와 범위 모든 면에서 가속화되었다. 9.19 군사합의서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즉,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만들어가는 선순환체제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매우 이상적인 희망이었다. 현실은 정반대로 진행됐다. 북한은 신형 단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추진해왔고, 8차 당대회에서는 전술핵무기 역량 강화를 통해 핵대업을 완성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2022년에는 대남 선제공격을 담은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했고 강대강 구도를 남북 관계에 직접 적용하며 대남 적대시강화 정책 추진을 북한군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9.19 군사합의는 지난 5년간 북한이 공세적인 대남적대 정책을 발전시켜오는데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왔는가를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게 9.19 군사합의는 어떠한 효용가치가 있었는가다. 북한은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대범함을 보였지만, 다음날 9.19 군사합의 파기 위협은 실질적인 4가지 군사행동으로 발전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열고 대남 4가지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랬던 북한이 왜 6개조 22항 중 1조 3항에 대해서만 효력정지를 한 것에 대해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다음날 바로 GP 복구와 공동경비구역의 무장화를 추진했는가다.



02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에세이9.19 남북군사합의 한계와
북한의 목적

9.19 군사합의의 한계와 북한의 목적

지난 1월 4일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배경에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달간 북한 당국이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 훈련 등을 앞세워 9.19 군사합의를 직접적으로 15차례나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직접 침투시킨 데 있다. 더욱이 북한이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8월 1차, 2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이어 11월에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하자, 합참은 11월 20일 북한에게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군사정찰 위성 발사 중단을 경고하며 발사 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중지 등 필요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우리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1월 21일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을 발사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은 빨랐고 확고했다. 헌법 66조와 69조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헌법 89조는 군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국무회의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은 11월 22일 9.19 군사합의의 총 6조 22개 항목 중 1조 3항, 비행금지 구역 설정 하나만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국무회의 심의를 재가함으로써 그동안 비행금지 구역에 따른 우리군의 제약사항들을 해제시켰다. 그러자 다음날 북한은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사실상 완전 파기를 선언하며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되돌아보면, 2020년 6월 김여정 부부장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했지만, 실제로 파기하지 않았던 이유나, 2023년 11월 우리의 일부 효력정지에 북한이 바로 다음날 완전 파기를 선언할 수 있었던 점은 다음과 같이 9.19 군사합의의 맹점과 한계, 그리고 북한의 셈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첫째, 9.19 군사합의는 신뢰구축조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검증체제와 합의를 위반한 측에게 비용을 부담 지우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9.19군사합의에는 이런 항목이 없다. 특히, 운용적 군비통제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 비행을 허용하는 항공자유(open sky)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데, 9.19 군사합의는 이와 정반대로 비무장 지대 일대의 공중 정찰을 금지시키고 있다. 안보의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법 중 하나는 나의 말과 행동을 상대방이 신뢰하도록 보여주는 것이다. 즉, 정보공개로 통한 불확실성을



02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에세이9.19 남북군사합의 한계와
북한의 목적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통해 접경지대 일대의 정찰활동을 제한시킴으로써 북한의 대남 기습공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꼴이 되었다.

둘째, 당시 9.19 군사합의의 이러한 맹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9.19 군사합의를 서둘러서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 북한 당국은 마치 ‘2018년의 봄’이 북한 비핵화와 남북간 신뢰구축이 달성됐던 시기인 양, 2019년 이후의 시기들과 구분지으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핵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북한의 주요 정책이라며 2021년 10월부터는 노골적으로 전술핵 역량 강화에 기반한 국방 최우선 정책을 강조해왔다. 북한 당국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며 ‘핵심 5대 과업’의 조기 달성을 지시했다. 2022년, 2023년에 이르러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A형·B형, 화성-15, 17, 18 ICBM, 수중발사 해일 1·2, 신형 순항 미사일 화살1·화살2, 전술핵탄두 화산-31, 신형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 만리경1호 군사정찰위성, 천리마 1형 로켓 등에 이르기까지 핵심 과업들은 속속 조기 달성을 과시해왔다. 그러나 핵심 과업들의 조기 달성이란, 사실 2021년 과업지시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18년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시험발사로 역량을 과시한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와 정반대로 한국군의 훈련 및 전력 현대화 사업 등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비난하는 수단이자, 동시에 북한의 핵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5대 과업의 집중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마지막으로, 9.19합의가 파기되면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한반도의 위기를 관리하는 장치가 없어지는 가다. 아니다. 북한의 침투와 도발의 적고 많음은 남북관계 역사를 되돌아 볼 때 합의문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오히려 힘에 의한 억제가 남북간 합의서의 효력을 유지시켰지, 합의서 자체가 한반도 안정을 담보해주지 않았다. 우리의 일부 효력 정치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완전파기를 선언하고 완전 무효화 단계에 진입하면 남북관계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정전협정의 비무장 지대의 비무장화와 남북기본합의서 2장 남북불가침과 2장 불가침 부속합의서에 기반해 한반도의 안정을 관리하면 된다.



03

이슈 토크

미국은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White House frustrated by Israel's onslaught but sees few options
(11.5, Washington Post)

- ✓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지상 침공을 반대**하면서 '공격의 비례성'을 강조했으나, **美 국무장관의 이스라엘 방문(11.3) 이후에도 어떠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임.**
- ✓ 미국은 이스라엘에 연간 4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태세 변화를 위한 영향력 행사가 쉽지 않아 보임.**

Philippines' Marcos to Visit U.S. Indo-Pacific Command in Hawaii
(11.5, Nikkei Asia)

필리핀, 남중국해 긴장 고조로 對美 국방협력 강화에 주력

- ✓ 필리핀 대통령은 **美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11.15~17) 참석 후 하와이에 있는 美 인태사령부 본부를 방문할 계획**
- ✓ **국가 원수가 외국군 사령부를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남중국해에서 中-필리핀 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필리핀이 미국과 가깝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임.**

北, '화성-17형'을 발사한 11월 18일을 새로운 명절로 제정

North Korea debuts new holiday to mark launch of largest nuclear missile
(11.6, NK News)

- ✓ 북한은 최대 규모의 핵 능력을 갖춘 미사일 '**화성-17형**'의 성공적인 발사를 기념하기 위해 **11월 18일을 '미사일공업절'로 지정**하기로 함.
- ✓ 이는 '화성-17형' 미사일 발사 당시 처음 소개된 **김정은의 딸을 잠재적 후계자로 부각하는 한편 북한의 군사적 야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03

이슈 토크

Hamas and the new lessons of irregular warfare
(11.6, Foreign Policy)

하마스의 비정규전은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을 능가하는 영향력 보여줘

- ✓ 하마스의 공격은 **첨단 기술이 항상 이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음.
- ✓ 하마스는 △**이스라엘 군사장비의 취약성** △**마을의 상세 배치** 등을 휴민트를 통해 수집하는 **전통적인 스파이 기술을 사용**했고, 이는 **이스라엘의 기술적 우위를 무너뜨림**.
- ✓ 첨단 기술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국경도 **하마스의 패러글라이더·블도저·오토바이·로켓 조합**에 무너짐.

NATO, 유럽 내 푸틴의 영향력 확대 저지를 위해 발칸반도 방위를 강화해야

Russia's second front in Europe
(11.7, Foreign Affairs)

- ✓ 세르비아와 코소보는 **2008년 코소보 독립 이후 최근까지도 갈등이 지속**됨.
- ✓ 그간 **러시아는 발칸반도 내 NATO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보 작전으로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불신을 조장, 대립을 심화**시킴.
- ✓ NATO는 지금 당장 **유럽 보호 및 러시아 저지를 위해 발칸반도에 대한 방위를 강화**해야 함.

How two-faced Xi Jinping is exploiting war in Gaza to beget China's new order
(11.11, The Guardian)

중국은 두 개의 戰線을 이용해 글로벌 입지 강화를 노리고 있어

- ✓ ‘하마스-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과 동일
- ✓ **중국은 가자지구에서도 원칙적 중립을 주장**하고 **평화사절단을 파견**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음**.
- ✓ 중국은 미국을 약화시키고 자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양쪽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음.



03

이슈 토크

미·중 간 소통 강화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는데 도움될 수 있어

China's misunderstood nuclear expansion
(11.10, Foreign Affairs)

- ✓ 미국은 불투명하게 급속히 핵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의심하고, 중국은 자국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에 대해 계속 대응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양국 간 군비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 중국과 미국이 서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사소통 확대는 악순환을 끊는데 도움**이 될 것

When North Korean jets duelled with Israel in skies over Egypt
(11.10, NK News)

북한은 과거와 같이 기회주의적으로 중동 분쟁에 개입할 수도

- ✓ 북한은 1973년 **욜 키푸르 전쟁**에서 **조종사·항공관제사 등을 이집트에 파견**
- ✓ 이집트는 전쟁 이후 **평양에 스커드-B 미사일을 제공**했는데, 이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초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음.
- ✓ 북한이 하마스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불분명하나, **과거 기회주의적으로 중동 분쟁에 군사 지원**을 했던 만큼, **다시 중동 분쟁에 개입할 수 있음**.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Fact Sheet : North Korea missile test activity
(11.14,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 ✓ 북한은 1984년부터 미사일 시험을 시작해 단·중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등 다양한 미사일을 244회 이상 시험 발사
- ✓ 북한의 시험 발사 실패율은 여전히 높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
- ✓ **1994년까지의 실패율은 약 50%**에 달했으나, **1994년~2011년간 실패율은 약 23%**로 떨어졌고, **2011~2023년간 실패율은 약 15%**에 불과



03

이슈 토크

Can America win over the world's middle powers?
(11.14, Foreign Affairs)

美는 우크라이나 이후 세계질서 정립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 ✓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일 것
- ✓ 현재 미국의 관심은 유럽과 중동에 쏠려있으나, 전쟁 이후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유포하는 선전·허위 정보에 강력 대응**하는 한편, **인도·멕시코·남아공 등 중견국들에게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제공하는 혜택을 보여줘야 함.**

美, 기후정상회의에서 '全世界 원자력 발전 확대' 논의 계획

US to push pledge to triple nuclear power by 2050 at COP28
(11.14, Bloomberg)

- ✓ 미국은 이번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30~12.12, UAE)**에서 **全世界 원자력 발전 용량을 오는 2050년까지 3배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 ✓ 이 회의 선언문 초안은 **원자력 발전이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공급원'**이라고 명시

Automakers' drive to avoid China's EV rare earth dominance
gathers speed(11.14, Reuters)

글로벌 기업, 중국발 리스크 회피 위해 '희토류 없는 전기차' 생산 추진

- ✓ 테슬라·제너럴 모터스 등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발 원자재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희토류 없는 차세대 전기차' 개발에 주력**
- ✓ 전문가들은 **향후 2년 내 차세대 전기차**가 본격 생산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노력이 **對中 희토류 의존 탈피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

중국 최대은행 ICBC,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 중단

Ransomware Attack on China's Biggest Bank Disrupts Treasury Market Trades
(11.10, securityweek.com)

- ✓ 중국 최대은행인 **ICBC(중국공상은행)**의 금융 서비스 부서가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미국 국채 시장 거래가 중단**
- ✓ 이번 공격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랜섬웨어 조직인 LockBit** 소행으로 추정



03

이슈 토크

Microsoft, Meta detail plans to fight election disinformation in 2024(11.10, theregister.com)

MS와 Meta(舊 페이스북), 2024년 선거 관련 가짜정보 확산 방지 전략 발표

- ✓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2024년에 있을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가짜정보 확산방지 전략을 마련
- ✓ MS는 이미지·비디오에 시점·생성자 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워터마킹 적용 서비스 제공, Meta는 정치 문제·선거 광고에 사진 등이 포함된 경우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변경된 사실을 광고주가 공개하도록 요구 예정

2024년 초는 북한의 외교전략 방향을 알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Reopening in slow motion : The growing risks of North Korea's two-tiered scheme(11.27, NK News)

- ✓ 2024년 초는 북한의 재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 ✓ 그간 북한은 최대 명절인 태양절(4.15)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이해관계자들을 환영해왔음.
- ✓ 내년 행사에 북한이 중·러 이외 다른 국가들을 초청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는 경시하는 외교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

North Korea hackers poison popular application to compromise over 100 devices (11.24, NK news)

北, 해킹에 '범용 앱' 활용 등 사이버 범죄 기술 정교해져

- ✓ 美 MS社は 北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비디오 재생 등에 널리 사용되는 대만 '사이버링크'社の S/W 설치 프로그램을 변조시켰으며, 이러한 악성 버전을 통해 美·日·대만 등 전세계 100개 이상의 장치를 해킹했다고 밝힘.
- ✓ 이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03

이슈 토크

서방은 러시아의 군사·비군사적 방식 병행 전략에 대응해야

The Russian Way of War
(11.24, Foreign affairs)

- ✓ 러시아는 많은 사상자를 감수하고라도 방어선을 유지하려는 전통적 군사전략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수도·전기 등 민간시설 파괴를 통한 우크라이나 국민 압박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봉쇄를 통한 유럽 내 인플레이션 유발 등 비군사적 방식을 동시에 활용 중
- ✓ 서방은 美·유럽의 對우크라이나 지원을 약화시키려는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Modest beginnings: North Korea launches its first reconnaissance satellite
(11.28, 38North)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 과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

- ✓ 북한이 과시하고 있는 '첫 정찰위성 발사'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됨.
- ✓ 이번에 쏘아올린 위성이 北 정찰 역량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더라도, 모든 국가가 자체적으로 수집·통제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이 영상위성 운영 역량을 지속 개발할 가능성이 큼.

北, 10월 말 이후부터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 등 7개 공관 폐쇄

North Korea to shutter embassy i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11.28, NK news)

- ✓ 최근 북한이 스페인·홍콩·우간다·앙골라·네팔·방글라데시에 이어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을 폐쇄한다고 밝힘.
- ✓ 북한은 최근 다수의 공관 폐쇄에 대해 '現 국제정세와 정부의 대외정책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으나,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對北제재에 따른 재정난 때문'이라고 분석



04

글로벌 리서치
포커스

Noam Raydan
美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The Gaza War's Impact on Energy Security in the East Mediterranean

2023. 11. 1.

가자전쟁이 동지중해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스라엘은 가자전쟁 전 동지중해 내 대형 가스전을 개발,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자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

- ◎ 요르단과 이집트까지 가스 수출 영역을 확대했으며, 우크라ין 발발 이후 유럽 내 러시아 에너지 대체지로 부상
- ◎ 또한, 2022년 레바논과의 해양 경계 분쟁 해결을 통해 동지중해의 에너지 협력 및 안보 확보, 가스 생산에 주력

이스라엘 가스전 현황

가스전	발견연도	생산시작	예상 매장량
타마르(Tamar)	2009	2013	10조8000억 cf
레비아탄(Leviathan)	2010	2019	22조 cf
카리쉬(Karish)	2013	2022	2조3000억~3조6000억 cf

그러나, 가자전쟁 발발 이틀 만에 안전상의 문제로 타마르 가스전 생산을 중단하고, 동지중해 주요 수출항인 아슈케론항을 폐쇄하는 한편, 이집트 가스 수출까지 중단(10.29)

- ◎ 또한, 아슈케론항 폐쇄로 이스라엘의 석유 수입 항로도 홍해의 에일랏항으로 바뀌며 운송 시간과 화물 비용이 증가
- * 이집트는 △가스 생산량 감소 △수요 증가 △가스발전소(전력공급의 3/4 차지) 가동 등으로 이스라엘 가스 수입에 크게 의존

가자전쟁으로 인해 동지중해의 지정학적 위험이 가중되며 유럽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에너지원 다변화 실패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급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



04

글로벌 리서치
포커스

Daniel Rosen 외 1명
美 로디엄그룹 공동설립자

How America Should React to China's Economic Slowdown

2023. 11. 13.

미국은 중국의 경기침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그간 초고속 성장가도를 달리던 中 경제가 2021년부터 둔화국면에 진입, 경제성장률에서 美와의 격차가 대폭 감소

◎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수출 위축 등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이마저도 中이 통계를 부풀렸을 개연성 상당

중의 경제침체를 美 제재 탓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순전히 부동산·인프라 버블 등 中 내부 사정에 기인

* △정치적 동인에 기반한 무분별한 개발 △과도한 국가개입 △불충분한 시장화 △경제 데이터의 투명성 결여 등이 근본 원인

따라서, 美는 상기 팩트를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는 한편 中 경제가 美와 개도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데 주력할 필요

◎ APEC·G7·OECD 회의 등 주요 국제 이벤트에서 中 경제 침체 원인 및 파장 등을 분석한 정보 제공

◎ 특히, IMF·세계은행·WTO 등 글로벌 경제현안에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제기구에도 관련자료 지원 필요

◎ 中에 대해서는 경제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강화 지속 요청

또한, 국가안보와 밀접한 하이테크 분야에 국한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現 스탠스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

◎ 지나친 對中 규제는 美와 시각이 다른 EU 등 여러 동맹·파트너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올 소지가 있고, “美 제재 탓에 경제위기가 야기됐다”며 中이 美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

이같은 노력을 통해 中의 과장통계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각지에서 中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게 될 가능성 다분



04

글로벌 리서치
포커스FP
Foreign PolicyRaphael S. Cohen
美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The West's Incoherent Critique
of Israel's Gaza Strategy

2023. 11. 13.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략에 대한 서방의 비판은 비논리적

서방세계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면서도 가자지구 군사작전 시
'더욱 표적화'된 방식을 사용할 것을 지속 요구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위권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인질 구출
△동일한 유형의 추가공습 방지 △책임자 사살·체포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실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 예상

인질 구출	200명 이상의 인질을 찾기 위해 건물별·거리별·터널별 수색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인구 밀집 지역에서 하마스와 총격전 불가피
추가공습 방지	하마스가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500km에 달하는 터널을 탐지·파괴할 경우, 터널 위에 위치한 병원·학교 등 민간시설 대규모 피해 발생
책임자 사살·체포	△10.7 공습 가담자는 약 3,000명 △하마스 조직원은 약 2만 ~2.5만명으로 책임자 범위가 넓어, 전면전으로 비화 가능성

결국, 가자지구 戰場 특성상 어떤 군사작전을 전개하더라도 파괴적
지상전 및 다수의 민간인 피해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The
Eurasian
TimesPrakash Nanda
인 저널리스트QUAD: 6 Reasons Why South
Korea Could Become The Fifth
Member of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2023. 11. 18.

한국이 QUAD 5번째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이유

전문가들은 한국이 2022.5월 現 정부 출범 당시 QUAD와 긴밀한 관계
구축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점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가능하다고 분석

- 1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QUAD 정신의 키워드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일치
- 2 한국은 한반도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北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QUAD와의 연대 가능
- 3 QUAD GDP(31억불)가 전세계 35%를 차지하는바, 반도체·배터리 생산 협력 등과 관련 경제적 기회 모색 가능
- 4 회원국 간 네트워킹으로 공급망 다각화 등 상호목표 달성 도모
- 5 QUAD 의제가 인태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전염병 등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한국과 협력 가능
- 6 한국-QUAD간 공조시 中의 경제적 강압 등에 신속 대응



04

글로벌 리서치
포커스FOREIGN
AFFAIRSJennifer Kavanagh 외 1인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 등Washington's Looming
Middle Eastern Quagmire

2023. 11. 24.

미국에 다가오는 중동이라는 수렁

미국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발발 이후, 중동지역에 대한 전력 투입을
지속 증대시키며 역내 억지력 강화에 진력* 최근 한 달간 1,200명 이상의 병력을 증파하고, 쿠웨이트 사우디 UAE 등 美 파트너국에
주요 방공시스템을 추가 배치그러나, 이와 같은 對중동 군사력 증강 정책이 오히려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용 및 위험부담을 높일 소지 다분

- ◎ 미군 주둔이 적대 세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적의 오판을 초래하거나 세력
확장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
- ◎ 또한, 역내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과 反美감정 확산으로 아랍권 국가와 안보협력
기반이 무너질 여지
- ◎ 특히, 美 군사력이 중동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양안 급변사태 등 인태지역 정세
변화에 대응할 전력이 약화

이에, 미국은 '무조건적인 안보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군사 외교적
유연성을 갖춘 對중동 전략으로 수정할 필요

- ① 이-팔 분쟁 이후 추가 파견된 병력을 재배치하고, 미군 주둔 필요성이 감소한
이라크·시리아 등에서 점진 축소 및 철수
- ② 필요시 미군 작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에 대한 기존 투자를 지속하되,
주요국가 위주로 기지를 통·폐합
- ③ 특히, 중동 내 소다자(minilateral)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자체적인 안보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력

즉, 제한적이고 균형잡힌 對중동 정책을 추진해야 국가안보 우선
순위에 따른 효율적인 군사력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 월간 뉴스레터

* 정책자문위원 에세이, 이슈톡톡, 글로벌 리서치 포커스의 내용은 국가안보실의 공식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nso@president.go.kr